

본회 축산물 유해물질 잔류방지대책 적극 추진 방침

본회는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께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돼지고기내 유해물질 잔류방지대책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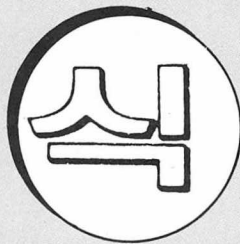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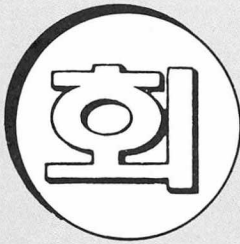
본회는 이를 위해 우선 본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을 통해 양축농가들에게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계도해 나가는 한편, 전국의 각 도별로 『유해물질 잔류방지 대책 위원회』를 구성, 상호감시와 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잔류방지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는 이밖에도 지부의 월례회의와 각종 행사 및 세미나를 통해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한편, 스티카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도 축산물내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해 산하 각 기관과 단체를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농림수산부와 보건복지부는 축산물내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될 경우 출하 농장 추적조사와 함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폐기처분키로 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11월1일과 금년 1월19일 열린 한·미통상실무협약(TAG)에서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육류생산단체들도 지난해 5월 한국산 축산물, 특히 돼지고기에 대한 잔류검사결과 미공포 및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슈퍼 301조에 의한 제한적 무역조치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등 유해물질 잔류문제가 새로운 통상압력수단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본회, 음식물쓰레기 사료 자원재활용 촉구 성명 발표

본회는 지난 2월 11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 하는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전국에서 돼지 6백만두를 사육하는 5만4천 양돈농가는 음식물쓰레기를 돼지사료로 재활용 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값싸고 품질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본래의 목적외에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양돈사료로 사용하는데 이썩시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번 환경부의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에 이썩시개를 혼합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식당에서의 이썩시개 사용금지로 일부 국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쓰레기를 자원화 한다는 의미에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했다.

또한 성명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운반처리방법의 개선과 함께 이썩시개가 혼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사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히고 본 협회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본회 '95 종돈 MMA 물량 증량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본회는 지난 2월 14일 '95년도에 수입되는 종돈의 MMA(최소시장 접근방식) 물량을 대폭 증량시켜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95년도에 수입되는 종돈의 MMA 물량을 1,110두로 책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돈 농가들의 사육 규모 확대와 전업규모의 농가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종돈의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

본회는 의견서에서 국내의 양돈경기 변화에 따라 '94년도말의 번식공용돈에 대한 보유두수가 늘어났고 '94년도 신용장을 개설하고 '95년도 수입된 이월물량을 감안해 아래와 같이 수요량을

증가시킬 것을 건의 했다.

「'94년 12월 현재 보유 종돈수는 839,326두이고 연간 도태율은 암·수 각각 40%로 연간 도태두수는 335,730두이다.

따라서 연간 도태돈 보충용 종돈확보량은 암 돼지 77,885두, 수돼지 15,119두로 93,004두의 우수종돈이 소요되지만 그중 2%(1,860두)와 '94년도 이월량 374두를 추가시켜 총 2,234두를 MMA 물량으로 수입 허용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참고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지난 1월중에 각 종돈장과 농장 그리고 수입상사로부터 종돈의 MMA 물량 수입 신청이 3천여두가 되었으며 MMA 물량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물지 않지만 MMA 물량을 초과할 경우 24.7%의 관세를 내게 된다.

김해지부 태국에 수출용 양돈단지 조성계획

김해지부(지부장 : 김위진)는 태국에 120만평의 부지에 양돈단지를 조성, 3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해지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 태국 칸차나브리주 도파롬시를 방문, 태국 양돈산업 실태, 입지 및 기타 여건을 조사하기로 하고 돈육수출의 해외기지건설 준비를 위하여 지부 운영위원 13명과 행정공무원2명이 현지조사를 떠났다.

이번 현지 조사는 국내양돈산업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UR이후 세계무역의 개방에 대한 파고를 해쳐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태국내 수출전문의 현지 양돈장 및 육가공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번 태국정부와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의 사전조사에 해당한다. 이번 부산 김해지부는 우리 고유의 브랜드화된 우수한 돈육을 확보, 해외생산을 통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며 해외에 돼지

고기 수출 전진기지화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현지 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산돼지고기 소비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본회는 소비자들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28일 국산돼지고기 소비홍보포스터 2만부를 제작, 배포했다.

이 포스터는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돼지고기의 가치 차별화를 유도하여 국내산 돼지고기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회에서 제작한 포스터의 경비는 본회 회원들이 납부한 '95 홍보 자조금 회계 소비홍보활동비로 제작되었고 포스터의 주요 배부처는 본회의 각 지부, 축협, 농협 등의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 정육점, 식당 등으로 소비자들과 접촉이 빈번한 곳에 부착토록 했다.

본회, 양산지부 신규설립 승인

본회는 2월8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산지부가

부산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 지부를 구성한 양산지부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양산지부는 이응철씨(48세)가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회원수는 32명이다. 양산지부는 양산지부서부지회 회원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이로써 본회 지부수는 89개로 늘어났다.

▲주소: 경남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 272-3

▲전화: (0523) 82-3943

▲FAX: (0523) 84-9825

진천지부, 지부장 취임 및 임원개편



유재록 지부장

진천지부는 지난해 12월 정기총회결과, 신창군 지부장 후임에 유재록 씨가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 고종운 씨, 총무에 이상기 씨로 임원개편이 이루어졌다.

유재록 신임지부장은 형제종축을 경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선진농민상을 도지사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다.

포천지부장에 강완구 씨 선출



강완구 지부장

포천지부는 지난 1월 24일 지부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성묵 지부장 후임으로 신임지부장에 강완구 씨를 선출했다.

강완구 신임지부장은 동원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현재 포천 축협 수석이사를 맡고 있다.

거창지부장에 최영렬씨 선출



최영렬
지부장

거창지부는 '95년 정기총회를 갖고 김종출 지부장의 후임으로 최영렬씨를 새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최영렬 신임지부장(40세)은 동아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거창군 고제면 공항리에서 1,000두 규모의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지부 업무에 적극 참여해 왔다.

여주지부장에 윤상익씨 선출



윤상익
지부장

여주지부는 지난 1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윤상익 신임지부장과 새임원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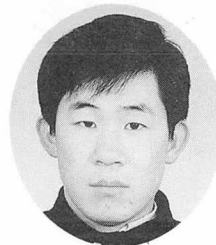
윤상익 신임지부장은 연주군 강천면에서 덕성농장을 운영하고 지부업무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현재 여주 축협 이사를 지내고 있다.

의령지부 사무실 이전

의령지부(지부장 : 김정수)는 지난 2월 8일 지부 사무실을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 301-1
▲전화 : (0555)72-1483
▲FAX : (0555)72-1483

본회, 경력 사원채용



장세균
씨

본회는 지난 2월 23일 홍보부에 장세균(31)씨를 새로 채용했다.

장세균 씨는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축산경영학을 전공했고 (주)천호인티크레이션 등에서 4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함양지부 전송(FAX)번호 변경

본회 함양지부(하영국지부장)는 지난 2월 16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전송(FAX)기를 새로 설치하고 FAX번호를 변경했다.

▲ 전송번호 : (0597)62-9386

